

4차 산업혁명과 불교의 경제윤리*

장 성 우 · 박 경 준**

동국대학교

〈요 약〉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과 함께 암울한 전망도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이라는 첨단기술의 발전과 그 기술의 현실적인 적용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4차 산업혁명이 초래할 수도 있는 대량실업사태와 함께 인류가 쓸모없는 존재로 전락하거나 멸망할 수도 있다는 비극적인 상황을 회피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을 비롯한 경제주체들의 이기적·근시안적인 활동에 대한 제어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경제주체들의 이기적·근시안적인 경제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고 자유방임적인 이윤추구활동을 인정하는 현대 자본주의사회의 논리는 이에 필요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비해 불교의 인간욕구에 대한 관점과 경제윤리는 인간의 욕구를 수용하면서도 중도적으로 제어해야 함을 인정하며, 나아가 기업의 경제적 책임과 함께 자선적 책임의 중요성을 특히 강조하고 있으므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첨단기술이 가져올 낙관적인 전망을 수용하면서도 비관적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논리와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핵심주제어: 4차 산업혁명, 실업사태, 인류멸망, 이기적인 경제행위, 불교 경제윤리

* 이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3S1A5A2A03044931)

** 장성우(주저자), 박경준(교신저자) sjkj@dongguk.edu

I. 서론

4차 산업혁명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2016년 1월, 46회 다보스 포럼에서 주제로 선정되었고, 이를 계기로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을 비롯한 로봇과 사물인터넷(IoT), 무인자동차 등의 신기술이 세계 각국의 경제와 사회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것이 알려지게 되었다. 다보스 포럼에서는 글로벌 경제의 저성장과 같은 세계경제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4차 산업혁명을 설명하면서, 속도와 범위와 영향력 면에서 컴퓨터와 인터넷 기반의 지식정보혁명인 3차 산업혁명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고 광범위하고 큰 변화가 올 것이라고 예상하였다.¹⁾ 특히 파괴적인 기술로 각국의 산업이 대대적인 재편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보았는데,²⁾ 인공지능을 비롯한 신기술로 인한 대대적인 변화가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은 향후 10년 안에 전 세계 산업의 지형을 기존의 어떤 산업혁명보다 더 강력한 힘으로 바꿀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와 함께 한국에서도 한국에 주어진 4차 산업혁명의 골든타임은 5년으로 예상되므로, 이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³⁾ 주장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는 생산력 발전과 인류의 복지 증대와 같은 낙관적인 전망과 함께 대규모의 실업사태가 발생하고 인간이 무능력하고 불필요한(useless)⁴⁾ 존재로 전락할 수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도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는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 글은 4차 산업혁명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희망과 함께 반드시 대비해야 하는 문제점을 검토하면서, 이러한 문제점 해결에 불교의 경제윤리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불교의 경제사상은 적극적인 경제활동을 긍정하면서도, 자신과 타인의 행복을 함께 도모하는 윤리를 가지고⁵⁾ 있으므로, 4차 산업혁명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1) 정민, 「현안과 과제 : 2016년 다보스 포럼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4차 산업혁명, 글로벌 성장 원동력으로」, 『현안과 과제』 16-2호(서울: 현대경제연구원, 2016), 1-9쪽.

2) 노영우 외, 『2016 다보스 리포트』(서울: 매일경제신문사, 2016).

3) 이민화, 「제4차 산업혁명의 선진국 사례와 한국의 대응전략」, 『선진화 정책시리즈』(서울: 한반도 선진화 재단, 2017), 14쪽.

4) 유발 하라리는 2016년 4월 26일 서울에서 “인간은 과연 쓸모없어지는가” Will Humans Become Useless?라는 제목으로 강연하였다.

5) 박경준, 『불교사회경제사상』(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2010), 240-250쪽.

Ⅱ. 4차 산업혁명시대의 명암과 윤리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 회장인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에 의하면, 4차 산업혁명은 물리학 기술, 디지털 기술, 생물학 기술의 발전이 이끌고 있다.⁶⁾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주요한 첨단기술에 대해서는 약간의 異見은 있지만 다음의 10가지 기술로 정리될 수 있다. 즉 인공지능, 로봇, 사물인터넷, 자율자동차, 3D 프린팅, 나노, 바이오, 재료과학, 에너지, 데이터 처리 등이다.⁷⁾ 그러나 개별 학문과 기술이 융합되면서 발전을 촉진하는 측면이 중요하므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결합(Online to Offline), 즉 가상과 현실의 융합으로 4차 산업혁명을 이해하여야 한다고 보기도 한다.⁸⁾

4차 산업혁명을 보는 관점은 입장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4차 산업혁명을 이끌고 있는 첨단 기술은 여러 분야의 제조업과 서비스업 현장에 이미 적용되어 큰 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예상되는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과 대책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1.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

4차 산업혁명의 바람직한 효과는 무엇보다 먼저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생산성을 대폭 증대시킬 수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2016년 다보스 포럼에서도 4차 산업혁명은 글로벌 경제의 저성장 등 최근 세계경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자, 세계경제가 다시 성장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되었던 것이다.⁹⁾

더구나 4차 산업혁명으로 예상되는 생산성 향상은 로봇·기계·인공지능 등을 활용하여 나타나는 결과이며, 또한 생산가능인구가 부족한 노령화사회에서는 노동할 수 있는 인구가 부족하므로 4차 산업혁명에 의한 인간 노동력의 대체는 적절한 범위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미국과 독일 등은 노동 비용을 줄이기 위해 해외로 이전했던 제조 공장을 다시 본국으로 옮기는 리쇼링(Reshoring) 정책을 펼치고 있다. 즉 해외의 저렴한 노동력을 고용하는 것보다 로봇·기계·인공지능 등을 활용하는 것이 생산 비용이 절감되므로 제조 공장들을 자국으로 옮기면서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디지털 기술의 활용을 통해서 다양한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비용을 절감하는 시도가 등장하고 있다. 즉 우버(Uber) 택시와 소카(Socar)와 같이 자동차 이용의 편의성

6) 클라우스 슈밥 저, 송경진 번역, 『4차 산업혁명』(서울: 새로운 현재, 2016), 36-53쪽.

7) 김윤경,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국내환경 점검과 정책방향」, 『KERI Brief』(서울: 한국경제연구원, 2017), 20쪽.

8) 이민화, 앞의 글, 17쪽.

9) 정민, 앞의 글, 3-10쪽.

과 비용 절감을 위해서 디지털 기술이 활용되고 있다. 또한 최근의 디지털 사진기는 한계 비용이 제로이기 때문에 누구나 경제적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디지털 기술과 같은 첨단 기술이 다방면에 사용되면서 미래에는 공유경제의 영역이 더욱 확장될 것이라는¹⁰⁾ 전망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로봇과 기계를 활용한 생산력이 비약적으로 증대되면서 인간은 이제 더 이상 단순하고 반복적인 노동에 장시간 얹매일 필요가 없으며, 근무시간이 줄어들게 됨은 물론이고 일을 하는 목적도 즐기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를 표현하고 자기를 실현하기 위해서 일을 할 것이라는¹¹⁾ 전망도 나타나고 있다.

2.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

그러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부정적이고 우려 섞인 전망도 나타나고 있다. 먼저 실업문제를 보면, 2016년 다보스 포럼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기술혁신으로 2020년까지 71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210만개의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진다고 하였다. 결국은 4차 산업혁명으로 2020년까지 500만개의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의 시장조사기관인 가트너(Gartner)는 현재와 같은 속도로 인공지능이 발전하면 10년 안에 전체 직업의 3분의 1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하였다.¹²⁾ 최근에 미국 아마존에서 로봇·드론·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면서 약 30만 명이 실직상태에 빠졌다는 사실은¹³⁾ 4차 산업혁명이 초래할 실업문제의 심각성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간의 새로운 욕구가 등장하고 이에 따른 일자리가 많이 등장할 것이므로 전체적으로 일자리가 줄지 않을 것으로 보기도¹⁴⁾ 한다. 만일 그렇다 하더라도 새로운 일자리에 필요한 기술과 기능을 익히는 절대적인 시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중·단기적으로는 대량 실업사태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실업문제의 경우, 한국이 미국보다 더욱 심각할 수 있다. 컴퓨터에 의한 고용 대체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에 속한 일자리가 미국의 경우 47%이지만,¹⁵⁾ 한국은 55-57%에 달하고 있으며, 한국은 고속권 서비스 부분의 일자리가 미국의 절반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¹⁶⁾

10) 클라우스 슈밥, 앞의 책, 187-189쪽.

11) 안상희, 이민화, 「제4차 산업혁명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영학회 통합학술발표논문집 2015』 (서울: 한국경영학회, 2016), 2357쪽.

12) 위의 글, 2347쪽.

13) <아마존의 노동 없는 기계 제국>, 《한겨레신문》, 2017년 2월 6일자(인터넷신문). 그러나 아마존은 약 14만 6천여 명을 고용하여 직업의 순손실은 약 14만 9천여 명 정도라고 한다.

14) 안상희, 이민화, 앞의 글, 2351쪽.

15) Frey, C. B. and M. A. Osborne(2013), "The Future of Employment: How Susceptible are Jobs to Computerisation?", Oxford Martin School Working Paper.(김세움, 『기술진보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와 대응』, 한국노동연구원, 2015, 42쪽 재인용)

실업문제는 곧 바로 빈부격차의 심화라는 문제에 연결될 수 있다. 즉 4차 산업혁명으로 기업은 이윤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반면에 기계·로봇·인공지능에 의해 대체된 인력은 실업 상태로 전락하게 된다. 그런 경우 전 세계 상위 1% 부자가 50% 이상의 부를 차지하고 있는¹⁷⁾ 현재의 극단적인 빈부격차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더군다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과 선진국이 시장을 주도하는 반면에, 개발도상국 노동력이 가지고 있는 저임금의 비교우위도 기계·로봇·인공지능에 의한 노동으로 대체되어¹⁸⁾ 더 이상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빈부격차는 더욱 커질 것이며, 그만큼 개발도상국의 빈곤문제는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¹⁹⁾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가²⁰⁾ 진행되고 있는데, 기본소득을 도입하더라도 그 소득이 실업 상태 이전의 소득수준을 회복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더구나 선진국과는 달리 복지제도가 미비한 개발도상국들은 기본소득이 도입되더라도 확보되는 소득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본소득 도입 외에도 복지제도와 같은 기존의 제도를 충실하게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주장도 있다.²¹⁾

그러나 만일 기본소득제도가 도입되지 않거나 복지제도의 충실화 등과 같은 변화가 실현되지 않아서 적정한 소득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소득이 급락할 것이며, 소득 급락은 가정 파괴와 함께 사회적 혼란의 원인이 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복지제도 외에 종교계에서는 이러한 혼란에 대비하여 정신적 치유와 심리적 안정을 위한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는 준비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빈곤문제와 별도로 로봇·기계·인공지능이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는 것은 인간에게 자유를 준다는 측면도 있지만, 반대로 인류가 무능력한 존재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위기를 가지게 한다. 영국의 호킹 박사도 현재와 같은 속도로 기술이 발전한다면 로봇과 인공지능이 결합하여 로봇이 지배하는 세계가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²²⁾ 또한 이미

16) 김세움, 위의 책, 42-43쪽.

17) 국제구호단체 옥스팜 인터내셔널(Oxfam international)에 따르면, 2015년부터 전 세계의 상위 1% 부자들의 재산이 나머지 전 인구의 재산보다 많아졌다.

(<http://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307148>)

18) 김윤경, 앞의 글, 5쪽.

19) <생명 연장 치료, 돈 많이 들어가 ... 21세기는 역사상 가장 불평등>, 《중앙일보》 2017년 6월 3일자(인터넷신문). 유발 하라리는 21세기에는 생명 연장 기술의 발달로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보다 훨씬 오래 살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4차 산업혁명과 같은 첨단 기술의 발달은 경제력에 따른 인간 수명의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20) <로봇에 세금 물리고 기본소득 도입하자>, 《한겨레신문》, 2017년 2월 6일자(인터넷신문).

21) 김병인, 「기본소득은 사회보장을 위한 최선의 대안인가?: 사회정책의 필요(needs) 개념에 입각한 비판적 검토」, 『사회복지정책』 Vol.43 No.4 (서울: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16), 79-107쪽.

22) <불교는 인공지능 미래 책임질 유일 해결책>, 《법보신문》, 2016년 5월 30일자(인터넷신문). 자아의식을 가진 인공지능의 출현 가능성을 논하고 있으며, 일단 인공지능이 자아의식을 가지게 되면, 인간의 통제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

2000년에 이란·이라크에서 무인전투기와 지상로봇이 전쟁에서 활용되었고,²³⁾ 2017년 현재에도 인공지능과 첨단기술을 이용하여 세계 각국에서 무기를 개발하고 있음을²⁴⁾ 감안해보면, 로봇 등과 같은 첨단기술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인간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3. 첨단기술에 대한 윤리적인 접근

로봇·기계·인공지능 등과 같은 첨단기술이 인류에게 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첨단기술을 윤리적으로 사용해야 함을 강조하는 몇 가지 윤리적 원칙들이 제시되어왔다. 그 중에서 초기의 대표적인 논의가 로봇의 3원칙인데, 이 원칙은 미국의 SF 작가 아이작 아시모프(Isaac Asimov)가 1950년에 발간한 『아이 로봇』(I Robot)에서²⁵⁾ 제시되었다. 그 주요내용은 로봇은 인간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되며, 인간에게 이로움을 주어야 한다는 것으로, 로봇이 잠재적으로 인간에게 해로울 수 있으므로 이에 대비해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로봇의 3원칙 이후 주목할 만한 논의는 금년 초에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에 근거하여 등장한 아실로마 23원칙이다.²⁶⁾ 이 원칙에는 인공지능 및 로봇공학 연구자 816명을 포함한 2천여 명이 서명했는데, 여기엔 물리학자인 스티븐 호킹, 전기자동차회사 테슬라의 최고경영자 일론 머스크, 알파고를 개발한 구글 딥마인드의 데미스 하사비스 최고경영자, 인공지능이 인간을 넘어서는 특이점(Singularity)²⁷⁾이 2045년에 온다고 말한 미래학자 레이 커즈와일²⁸⁾ 등이 이름을 올렸다. 아실로마 23원칙은 연구의 문제와 윤리와 가치,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공지능이 인류에 해를 끼치지 않고 이로움을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검토하고 그 위험성을 공론화한 것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외에도 드론의 규제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²⁹⁾ 그러나 이러한 로봇 3원칙과 아실로마 23원칙 등은 법적인 효력이 없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그 원칙들이 지켜질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예를 들자면,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해서 UN에서 마련한 유엔 글로벌 콤팩트 10대 원칙에는 인권과 환경을 보호하며, 부당취득 및

23) <지금도 이라크·아프간전 1만 2,000대 로봇 활약>, 《중앙선데이》, 2000년 3월 14일자(인터넷신문).

24) <무기 개발도 4차 산업혁명...상상 속 전투장면 현실로, 방위사업청 - 방산기업 손잡고 인공지능·무인기·로봇병사·레이저무기 개발 중>, 《매일 경제 신문(MK)》, 2017년 3월 14일자(인터넷신문).

25) 아이작 아시모프 지음, 이기원 옮김, 『아이, 로봇: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로봇이야기』 (서울: 동쪽나라, 1993) 참조.

26) <호킹 박사가 지지한 AI 23개 원칙 살펴보니...>, 《월요신문》, 2017년 2월 2일자(인터넷신문).

27) 기술적 특이점(技術的特異點, technological singularity)은 인공지능의 발전이 가속화되어 모든 인류의 지성을 합친 것보다 더 뛰어난 초인공지능이 출현하는 시점을 의미한다.

28) 레이 커즈와일(Ray Kurzweil, 1948-)는 미국인으로 세계적인 발명가·사상가·미래학자이다.

29) <안전과 산업 발전 균형점 찾아나서는 韓 드론산업>, 《보안뉴스》, 2016년 8월 6일자(인터넷신문).

너물 등 부패에 반대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³⁰⁾ 그러나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 활동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들이 충실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환경문제에 대하여 유엔 글로벌 콤팩트 10대 원칙에는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을 지지한다.는 내용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은 기업 경영 현장에서 제대로 준수되지 않고 있고, 지구 온난화와 같은 환경문제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이렇게 보면, 현대의 기업경영에서는 기업의 이윤과 활동에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는 항목은 성실하게 준수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이 경제적 책임, 법적 책임, 윤리적 책임, 자선적 책임으로 구성되고 있다고³¹⁾ 한다면, 현실적으로는 기업의 생존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제적 책임과 법적 책임이 주로 지켜지고 있는 것이다. 기업의 윤리적 책임과 자선적 책임은 기업의 이윤과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범위 내에서 지켜지고 있으며,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제대로 준수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을 이끌고 있는 첨단기술에 대해서도 기업과 같은 경제주체들이 윤리적인 원칙과 기준들을 충실하게 따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미 4차 산업혁명은 진행 중에 있으며, 각국이 국가의 명운을 걸고 경쟁적으로 4차 산업혁명에 참여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나아가 4차 산업혁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한다는 주장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은 특별한 계기가 없는 한, 윤리적 책임과 자선적 책임을 성실하게 준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Ⅲ. 불교의 경제윤리와 욕구론

1. 불교의 경제윤리

불교는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중생에게 빈궁으로 인한 고통은 죽음의 고통보다 더한 고통이라고³²⁾ 보고 있으며, 중생들이 지나치게 사치와 방탕으로 흐르지 않는다면 재화를 소유하고 향유하는 욕구를 인정하고³³⁾ 있다. 즉 불교는 인간의 고통극복과 행복추구를 경제

30) 출처 :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http://www.unglobalcompact.kr/wp/>)

31) 서인덕·배성현 공저, 『기업윤리』(서울: 경문사, 2011), 137쪽.

32) 대정장 3권 『금색왕경』, 389쪽 (c22-c25)) 何法名爲苦 所謂貧窮是 何苦最爲重 所謂貧窮苦 死苦與貧苦 二苦等 寧當受死苦 不用貧窮生 : 대정장 53권, 『법원주립』, 865쪽 (c17-c18)) 飢爲第一病 行爲第一苦 如是知法者 可得涅槃道

33) 대정장 1권, 『장아함경』 「선생경」, 72쪽(b16) : 出財未至奢 當撰擇前人 ; 대정장 1권, 『장아함경』 「선생경」, 72쪽(b25-b27) : 佛告善生。六損財業者。一者耽湎於酒。二者博戲。三者放蕩。四者迷於伎樂。五者惡友相得。六者解墮。是爲六損財業。

활동의 출발점으로 보고 있다. 또한 범답게 재화를 축적하여야 하며, 축적된 재화는 자비심을 기반으로 빈궁한 자를 포함한 사회에 환원하고 종교적 가치를 위해서도 정성스럽게 보시해야 함을 설하고 있다. 『자따까』를 비롯한 초기경전을 보면, 불교는 상인들의 재화 축적을 위한 경제적 책임의 중요성을 다른 어떤 책임보다도 우선적으로 인정하고 있다.³⁴⁾ 즉 『자따까』는 초기불교시대에 불교의 가르침을 널리 펼치는 의미가 있었는데, 그 내용에 나타나는 상업에 관련된 이야기를 보면, 경제적인 성공을 추구하는 상인의 욕구를 인정하는 내용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초기불교는 공정한 분배와 정직성과 같은 법적·윤리적 책임도 소홀히 하지 않고 있다. 즉 경제행위로 획득한 재화를 공정하게 분배할 것을 강조하는 이야기와 함께, 소비자를 기만하는 상행위를 비판하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보시를 통한 자선적 책임을 다하는 것은 상인의 수행 및 사회의 경제적 안정과 함께 정신적·종교적 가치추구를 위해 매우 중요함이 인정되고 있다.³⁵⁾ 즉 보시는 보시자의 자비심을 기르고 탐욕을 제어한다는 의미가 있으며, 동시에 궁핍한 자에 대한 보시는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게 되며, 수행자에 대한 보시는 수행자의 정신적·종교적 가치추구를 지원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불교의 경제윤리는 정당한 이윤추구를 적극적으로 긍정하면서, 동시에 사회전체의 물질적·정신적·종교적인 행복을 추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불교의 이상적인 통치자를 의미하는 전륜성왕의 정치에서도 빈궁한 자에 대한 배려는 특히 강조되고 있다. 즉 궁핍한 자가 도둑질을 한 경우, 그를 벌하기보다는 그가 도둑질을 저지르기 이전에 도둑질할 필요가 없도록 먼저 보시하는 것이 이상적인 통치자의 할 일이라는 『장아함경』 「전륜성왕수행경」의 내용은³⁶⁾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복지사회의 이상을 나타내주고 있다. 즉 통치자가 궁핍한 자를 구제하기보다 그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 벌을 주는 것을 우선하는 방식의 통치는 경제적인 고통 때문에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사람을 권력을 사용하여 벌을 줌으로써 억압하려는 것이며, 이런 통치방식은 궁핍한 자로 하여금 통치자에게 대항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작용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궁핍한 자에게 벌을 주는 것을 우선하는 통치는 사회 혼란을 일으키고 사회가 타락하여 살기 힘든 세상으로 변하게 하는 원인이 되므로 궁핍한 자가 있다면, 통치자는 먼저 그를 구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재가자가 빈궁한 자·사회·종교인 등에 재화를 회향하여 보시하는 경우에 그 보시는 자비심에 근거하고 정성을 다한 보시여야 하며, 그런 경우 보시는 보시자의 탐욕을

34) 줄고, 「초기불교의 경영사상 연구: 현대경영의 대안모색을 위한 시론」, 동국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17, 272-276쪽.

35) 위의 논문, 276-278쪽.

36) 대정장 1권, 『장아함경』 「전륜성왕수행경」, 39쪽a.

제어하고 인색한 마음을 버리게 하는 의미가 있으므로, 보시는 보시자의 자비심을 함양하고 탐욕이나 인색한 마음과 같은 번뇌를 제어하고 버리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재가자의 수행에서 중요한 방편으로 활용될 수 있다. 즉 보시는 오하분결(五下分結)의 악의(惡意)와 감각적 욕망(慾望)을 제어하고 극복하는 수행의 과정이 되는 것이다.

2. 불교의 욕구론

불교는 또한 생존을 위한 욕구, 사회적 욕구, 자기실현의 욕구를 막론하고 모든 인간의 욕구를 중도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 즉 초기불교는 인간의 욕구는 끝이 없으며 왕의 경우는 넓은 국토가 있어도 만족하지 못하며, 왕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에는 끝이 없다고 보고 있다.³⁷⁾ 그러나 한편으로 불교는 재가자의 재화를 소유하고 향유하는 즐거움을 인정하여 재화에 대한 욕구를 인정하고 있으며,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을 완전히 부정하지 않고 있다.³⁸⁾ 따라서 불교는 인간의 정신적 발전과 진정한 행복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욕망을 중도적으로 제어하고 극복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감각적 욕망뿐만 아니라 이득과 존경과 명성에 대한 욕구도 제어되고 극복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즉 이득과 존경과 명성은 위없는 유가안은(瑜伽安隱)에 방해가 되며,³⁹⁾ 지금·여기에서 행복하게 머무는 데 장애가 되며,⁴⁰⁾ 이득과 존경과 명성에 압도되면 전도된 마음을 가지면 선근(善根)이 뿌리 뽑히게 되며,⁴¹⁾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매와 아들과 딸과 아내를 위해서도 거짓말을 안 하지만, 이득과 존경과 명성에 압도되면 거짓말을 하게 된다는⁴²⁾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초기경전에서는 보시를 통해서 이득과 존경과 명성을 얻을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으며, 위없는 유가안은(瑜伽安隱)을 얻기 위해서는 중도적으로 이득과 존경과 명성에 대한 욕구도 궁극적으로 제어해야 함을 설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고대 인도인들은 천상세계와 범천에 태어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진 경우가 많았다. 이런 욕구는 자기존중의 욕구 및 자기실현의 욕구와 관련되어 있다고 해석되는데, 천상세계 중에서도 범천(梵天)은 가장 높은 세계로서 많은 고대인도인들의 선망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초기불교는 천상세계와 범천에 태어나고 싶은 욕망까지도 극복해야 하는 욕구로 보고 있다. 즉 인간의 열 가지 번뇌에 속하는 오하분결(五下分結)과 오상분결(五上分

37) 전재성 역주, 『맛지마 니까야』, (서울: 한국빠알리성전협회, 2009), 927쪽.

38) 대립 스님 역, 『앙굿따라 니까야』 2권, 「빛 없음 경」(A4:62) (Ananaka-sutta)(울산: 초기불전연구원, 2012), 190-192쪽.

39) 각목 스님, 『상윳따 니까야』 제2권, 「무서움 경」(Dāraṇa-sutta)(울산: 초기불전연구원, 2009), 529쪽.

40) 위의 책, 「비구 경」(Bhikkhu-sutta), 553-554쪽.

41) 위의 책, 「선근경」(Kusalamūla-sutta), 556-557쪽.

42) 위의 책, 「아버지 경 등」(Pitu-Suttādi), 561-562쪽.

結) 중에서 오상분결에 포함되는 색계(色界)에 대한 욕망과 무색계(無色界)에 대한 욕망을 버려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색계와 무색계의 천상세계에 대한 욕망을 극복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아만(我慢)과 들뜸[도거(掉擧)]마저도 버려야 한다는 가르침이 있는데 아만과 들뜸이란 곧 자아라는 관념에서 비롯된 자기 존중의 욕구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번뇌이다. 따라서 초기불교는 보시·지계·생전의 가르침으로 천상세계와 범천에 태어나고 싶은 욕구를 인정하여 현세에서의 집착을 벗어날 수 있는 가르침을 설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천상세계와 범천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아만과 들뜸이라는 자기존중의 욕구와 함께 자아라는 관념도 극복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초기불교는 생존을 위한 욕구와 자기존중의 욕구, 그리고 자기실현의 욕구를 막론하고 모든 욕구를 중도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 즉 제반 욕구를 결코 부정하지 않지만, 궁극적으로는 해탈과 열반이라는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제어되고 극복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같이 인간의 제반 욕구를 중도적으로 제어하고 극복하는 과정에서 보시를 실천하여 보시·지계·생전의 가르침을 따르고 나아가 무상·고·무아를 관하는 수행을 실천하는 것은 중요한 방편이 되고 있다.

이러한 불교의 욕구관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욕구는 자연스럽게 충족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며 인간의 욕구를 억압하는 것은 심리적인 병리현상을 일으킨다고 보는 프로이트 심리학과 그 영향을 받은 심리학들과는 차이가 있다.⁴³⁾ 최근에도 경영현장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에이브러햄 매슬로(Abraham Harold Maslow, 1908-1970)의 욕구단계이론을 보면, 생리적 욕구·안전의 욕구·소속 및 사랑의 욕구·자기존중의 욕구·자기실현의 욕구라는 5가지 범주로 인간의 욕구를 구분하면서 하위욕구가 충분히 만족되면 상위욕구가 자연스럽게 발현된다고 보고 있으며, 하위욕구를 제어하고 극복하기 위한 별도의 과정과 방편의 필요성을 특별히 설정하거나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매슬로가 지그문트 프로이트(Sigmund Freud, 1856-1939)가 인간의 성적 욕구를 논하면서 어린 시절의 문제가 성인의 정신병으로 이어진다고 보아⁴⁴⁾ 인간의 하위욕구 충족을 중시하였던 것에서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즉 프로이트는 인간의 생리적 욕구의 충족이 심리적·정신

43) 이와 관련하여 김동한 선생님(한국명상심리상담교육원)은 이글에 대한 논평을 통해서 프로이트 이후 정신분석의 흐름은 이드와 초자아를 중재하는 자아의 조절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현대 심리학에서도 욕망의 조절을 중요시함을 지적하였다. 필자는 이러한 김동한 선생님의 적절한 논평에 감사하며, 필자도 자아의 조절을 중요하게 여기는 현대 심리학의 경향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의 기업경영 현장에 적용 가능한 심리학은 매슬로의 욕구단계이론이라고 판단되며, 때문에 매슬로의 욕구단계이론을 기준으로 본 논문을 작성하게 되었다. 즉 현대기업의 자사 이기적인 경영의 모습은 욕망의 조절 기능이 적절하게 작동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고, 이는 하위욕구의 충족을 강조하는 매슬로 욕구단계이론의 논리와 닮았다고 판단되는 것이다.

44) 지크문트 프로이트 지음, 오현숙 옮김, 『성에 관한 세 편의 해석』, (서울: 을유문화사, 2007), 15-43쪽.

적 건강에 중요하다고 보았던 것이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인간의 욕망은 자유의지에 의한 수행으로 조절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즉 『자따까』에는 “애욕(愛慾)은 사념(思念)에서 발생한다.”는 내용이 있다.⁴⁵⁾ 또한 월칭(月稱, Candrakīrti)는 “욕망이여, 나는 너의 뿌리를 아나니, 너는 샛된 사념(思念, saṅkappa)으로부터 일어난다. 나는 더 이상 헛된 사념에 빠지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나에게서 모든 욕망은 사라질 것이다.”⁴⁶⁾고 하였다. 여기에서 사념(思念)은 빠알리어로 saṅkappa인데, 사유(思惟), 의도(意圖), 사념(思念), 목적(目的), 계획(計劃)의 뜻이 있다. 즉 의도와 욕망을 가지고 사유하는 것에서 애욕이 일어난다는 것이며, 따라서 인간이 자신의 사유의 과정을 제어한다면, 그 결과로 인간의 욕망도 제어될 수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불교 수행의 관점에서 보면, 보시와 지계를 통해서 자비심을 기르면서 탐욕과 성냄과 인색한 마음을 제어하고, 사무량심이나 무상·고·무아를 관하는 수행으로 자비심을 기르고, 지혜를 계발한다면, 탐욕의 뿌리를 제거하고 해탈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초기불교의 욕구관은 프로이트와 매슬로 심리학의 욕구에 대한 관점과는 차이가 있다.

IV. 결론

4차 산업혁명의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첨단기술을 개발하고 익히면서, 사회적·경제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흐름을 수용하고 선도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다. 초기경전에서도 사유재산을 부정하지 않고 있으며, 나아가 재화를 축적하는 행위와 노력, 즉 현대경영학에서 말하는 기업의 경제적 책임을 다른 어떤 책임보다도 자주 언급하여 그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한편, 4차 산업혁명으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부정적 효과는 무엇보다도 첫째, 대량실업의 발생과 둘째, 인간이 쓸모없는 존재로 전락하거나 멸망할 수도 있다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대량실업 문제는 이미 미국 아마존에서 로봇·드론·디지털 기술로 노동력을 대체하여 다수의 실업자가 발생한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선진국의 리쇼어링 정책으로 개발도상국에서도 실업이 발생하고 있다. 선진국은 노동자에 대한 직업교육과 복지제도를 통해 실업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여유와 여력이 있을 수 있으나, 복지제도가 미비한 개발도상국의 빈곤한 계층은 거의 무방비로 실업의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그로 인해 이미 심화되어 있는 세계적인 빈부격차가 더욱 악화될

45) 동국대학교 역경원 [편], 『(한글대장경)본생경』 3권, 172쪽.(서울: 동국대학교 역경원, 1988.) (Jātaka(PTS) III, p. 444.)

46) T. R. V. Murti, *The Central Philosophy of Buddhism* (London: George Allen and Unwin Ltd, 1974), p. 223. (박경준, 앞의 책, 84쪽 재인용)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문제는 기본급여 제도의 실시 또는 기존 복지제도의 보완으로 경제적인 도움을 주거나, 또는 중·단기적으로 실업의 고통을 감내해야하는 이들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환경과 직업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을 통해서 경제적 궁핍을 극복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기 전까지 계속될 것이다. 그 이전에는 세계적인 실업문제는 빈곤문제와 연계되어 정치·사회·경제·문화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파생시킬 가능성이 많다.

이러한 실업의 문제와 함께, 로봇·기계·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결합하여 인류의 능력을 능가하는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아실로마 23 원칙에서 이미 언급되었으나 현실적으로 기업 경영의 윤리적 책임과 자선적 책임에 대해 기업이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그 책임을 수행할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욕구가 하위욕구에서 자연스럽게 상위욕구로 발전한다고 보는 심리학의 관점과 인간의 이기적인 이윤추구활동에 대한 제어의 필요성을 중요하게 인정하지 않는 현대의 경제학 및 경영학의 관점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즉 초기불교의 욕구관은 인간의 생리적 욕구, 사회적 욕구, 자기실현의 욕구에 대해서 적절하게 인정하면서도 중도적으로 제어하고 극복되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그 방편으로 보시와 지계를 비롯한 여러 가지 수행, 즉 사무량심과 무상·고·무아를 관하는 수행을 통하여 자비심을 기르고 이기적인 욕망을 제어할 수 있도록 이끌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4차 산업혁명의 결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량실업과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류의 생존 자체가 위협을 받을 수도 있는 위험성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기업의 자사 이기적인 이윤 추구 활동에 대한 제어가 반드시 필요한데, 초기불교의 윤리와 욕구관은 그에 필요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초기불교에서는 빈궁한 계층에 대해 보시하지 않는 행위는 사회의 타락을 초래한다고 보고 있으며, 또한 인간의 욕구는 중도적으로 제어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초기불교의 관점을 통해서 보면, 현재 논의되고 있는 기본소득을 비롯한 복지제도 충실화 등의 필요성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러한 제도의 도입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롭게 등장하는 인간욕구와 그에 따른 직업에 적응하기 위한 직업능력 개발 교육도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개발도상국의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유엔과 같은 국제적 기구를 통한 협력과 국제적인 연대가 필요할 것이다. 즉 유엔에서는 2015년 9월의 유엔총회에서 모든 국가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을 종식한다는 것을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의 17개 전략목표 중에 첫 번째 전략목표로 정한 바 있다. 이러한 빈곤 극복이라는 전략목표는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을 모두 그 극복 대상으로⁴⁷⁾ 하고 있는데, 4차 산업혁명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빈곤의 극복을 위해서는 국제적인 협력과 연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인간의 욕구는 중도적으로 제어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해서도 윤리적 책임과 자선적 책임의 기준에서 제어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기업의 경영활동을 비롯한 이기적인 경제주체들의 활동에 대한 제어의 구체적인 실천은 정치 지도자를 비롯한 사회 각계각층의 지혜를 모으면서, 거기서 결집된 의견을 법제화하는 시도에 의해서 가능할 것이지만, 그러한 시도의 이론적 토대는 불교의 경제윤리와 욕구에 대한 관점에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불교계는 불교의 지혜로운 경제윤리와 욕구에 대한 가르침을 널리 사회에 전한다는 법보시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그를 위한 구체적 실천이 있어야 할 것이다.

47) 김태완, 이주미,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추진 전략과 주요 내용 - 빈곤 및 불평등을 중심으로」, 『보건복지포럼』 2016년 10월호 (통권 제240호) (세종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73쪽.

참고문헌

- 각목 스님, 『상윳따 니까야』 제2권, 울산: 초기불전연구원, 2009.
- 김세음, 『기술진보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와 대응』, 세종시: 한국노동연구원, 2015.
- 김윤경,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국내환경 점검과 정책방향」, 『KERI Brief』, 서울: 한국경제연구원, 2017.
- 김태완, 이주미,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추진 전략과 주요 내용 - 빈곤 및 불평등을 중심으로」, 『보건복지포럼』 2016년 10월호 (통권 제240호), 세종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 노영우 외, 『2016 다보스 리포트』, 서울: 매일경제신문사, 2016.
- 대림 스님 역, 『앙굿따라 니까야』 2권, 울산: 초기불전연구원, 2012.
- 대정장 1권, 『장아함경』
- 대정장 3권 『금색왕경』
- 대정장 53권, 『법원주림』
- 동국대학교 역경원 [편], 『(한글대장경)본생경』 3권, 서울: 동국대학교 역경원, 1988.
- <로봇에 세금 물리고 기본소득 도입하자.>, 《한겨레신문》, 2017년 2월 6일자(인터넷신문).
- <무기 개발도 4차 산업혁명...상상 속 전투장면 현실로, 방위사업청 - 방산기업 손잡고 인공 지능·무인기·로봇병사·레이저무기 개발 중>, 매일 경제 신문(MK), 2017년 3월 14일자(인터넷신문).
- 전재성 역주, 『맛지마 니까야』, 서울: 한국빠알리성전협회, 2009.
- 박경준, 『불교사회경제사상』, 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2010.
- <불교는 인공지능 미래 책임질 유일 해결책>, 《법보신문》, 2016년 5월 30일자(인터넷신문).
- <생명 연장 치료, 돈 많이 들어가 ... 21세기는 역사상 가장 불평등>, 《중앙일보》 2017년 6월 3일자(인터넷신문).
- 서인덕·배성현 공저, 『기업윤리』, 서울: 경문사, 2011.
- <아마존의 노동 없는 기계 제국.>, 《한겨레신문》, 2017년 2월 6일자(인터넷신문).
- 아이작 아시모프 지음; 이기원 옮김, 『아이, 로봇: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로봇이야기』, 서울: 동쪽나라, 1993.
- 안상희, 이민화, 「제4차 산업혁명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영학회 통합학술발표논문집 2015』, 서울: 한국경영학회, 2016.
- <안전과 산업 발전 균형점 찾아나서는 韓 드론산업>, 《보안뉴스》, 2016년 8월 6일자(인터넷신문).
-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http://www.unglobalcompact.kr/wp/>)
- 이민화, 「제4차 산업혁명의 선진국 사례와 한국의 대응전략」, 『선진화 정책시리즈』, 서울: 한반도 선진화 재단, 2017.
- 이코노믹 리뷰(.<http://www.econovill.com>)
- 장성우, 「초기불교의 경영사상 연구: 현대경영의 대안모색을 위한 시론」, 동국대학교박사학

위논문, 2017.

정민, 「현안과 과제 : 2016년 다보스 포럼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4차 산업혁명, 글로벌 성장 원동력으로」, (현대경제연구원 『현안과 과제』16-2호, 2016년 1월 19일).

<지금도 이라크·아프간선 1만2000대 로봇 활약>, 《중앙선데이》, 2000년 3월 14일자(인터넷신문).

클라우스 슈밥, 송경진 번역, 『4차 산업혁명』, 서울: 새로운 현재, 2016.

프로이트 지크문트, 오현숙 옮김, 『성에 관한 세 편의 해석』, 서울: 을유문화사, 2007.

<호킹 박사가 지지한 AI 23개 원칙 살펴보니...>, 《월요신문》, 2017년 2월 2일자(인터넷신문).

원고접수일: 2017년 6월 22일 심사일: 2017년 7월 11일 게재확정일: 2017년 7월 22일

연구자소개: 장성우

① 전공: 응용불교 / 소속 : 동국대학교

② 관심영역: 불교학과 경영학의 학제적 연구, 초기불교

③ 주요논저: 『初期佛教의 經營思想 一考察』(장성우, 박경준, 佛日出版社, 2015, 普照思想 Vol.44)

④ E-mail: 371008@naver.com

연구자소개: 박경준

① 전공: 응용불교 / 소속 : 동국대학교

② 관심영역: 불교의 사회경제론, 인도불교사.

③ 주요논저: 『불교사회경제사상』(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2010)

④ E-mail: sjkj@dongguk.edu

Abstract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Buddhist Economic Morality

Sung-Woo Chang · Kyoung-Jun Park

Dongguk University

There are positive prospects and bleak outlooks on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But the accompanying development and practical application of Fourth Industrial Revolutions high technologies may be unavoidable, and therefore we should make efforts to avoid the tragic situations of mass unemployment and humankind may be gone out of existence or degraded to the useless beings. To do this, controls over the selfish and short-sighted activities of economic units including commercial company are essential. But contemporary capitalism does not admit the necessity of aggressive regulations about the selfish and short-sighted activities and allows free pursuit of profit of economic units. Thus contemporary capitalism could not provide the effective theories and grounds. On the contrary, Buddhist thoughts and economic morality not only admit the necessity of control over human desire by middle way, but also underline the economic, legal & ethical, philanthropic responsibilities among 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for this reason, accept the optimistic prospect of Fourth Industrial Revolutions high technologies positively and provide the theories and grounds that could overcome the future gloomy situations

Key words: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mass unemployment, the end of mankind, selfish economic behavior, Buddhist economic morality